

# 광주·전남 골목형 상점가 328곳 지정... “전국 최다”

광주·전남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권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점가 지정 이후 평균 매출이 10% 증가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매출액 평균 10% 증가 효과

광주전남중기청 21일 광주권 활성화 정책협의회

전남권 동·서부 나뉘어 8월 21~22일 개최 예정

상점가’ 지정 규모는 총 328곳으로 전국 799곳 대비 41%를 점유해 가장 많은 상점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 통시장과 동일하게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장경영패키지(마케팅·교육·경영컨설팅), 안전관리패키지(노후 전선 정비·화재 알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이 지난달 23일 상점가로 지정된 전·후의 매출액 변화 현장 설문을 실시한 결과 상점가로 지정된 후 매출액이 평균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23일 광주 5개 구 골목형 상점가 업체 대표 98명을 대

상으로 이뤄졌으며 36명이 참여했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21일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5개 구청,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중기부가 추진해 온 골목형 상점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활성화 방안과 상권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을 논의했다.

전남지역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해 각각 8월21일, 22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권철 기자



## 철도로 수송한 항공유류 유류지원 이상 無!

공군 1전비, 유조화차 활용 항공유 수령 훈련 실시

전시 항공유 수령절차 숙달 및 군수지속능력 강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8월 19일(화), UFS 훈련의 일환으로 유조화차 활용 항공유 수령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차량을 활용한 일반적인 유류 수령 훈련과 달리, 광주송정역 등 철도시설과 유조화차를 활용해 진행됐다.

공군에서 항공유는 작전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전시 등 긴급 상황에서 원활한 항공유 보급은 작전 지속력 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한 항공유 수송수단 확보는 필수적이다.

항공유 보급을 위한 노력은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1전비는 지난 22년 이후 중단되었던 유조화차 수령 재개를 위해 올해 초 지역 관계관 회의를 거쳐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이후 4월부터 세밀한 안전검증을 바탕으로 철도 노면 점검, 선형 정상화, 자갈보충 등 선로 보수를 꼼꼼히 진행했다. 유조화차와의 연결 다리 등 제반 시설의 가동 준비도 마쳤다.

훈련은 전시 적의 공격으로 도로가 파손된 상황을 가정해 시작했다. 상황을 인지한 유류관리중대 요원들은 곧바로 철도를 통한 유류 수령절차를 개

시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행을 시작한 유조화차는 부대까지 이어진 철도를 따라 항공유를 수송했다.

유조화차가 도착하자 안전장비를 착용한 요원들은 신속히 움직였다. 연결 다리를 통해 화차에 접근한 요원들은 밸브를 개방하고 항공유 품질검사를 진행했다. 정밀검증을 통해 품질이 이상 없음이 확인되자, 요원들이 항공유를 유류 탱크로 옮기면서 훈련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훈련을 주관한 강동욱(소령) 보급대대장은 “전시에 항공유가 갖는 의미가 남다른 만큼, 항공유 수송수단 다양화 및 수령절차 숙달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완벽한 작전대비태세 유지는 물론 전시 군수지속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전비는 올해 2월 보급대대 주관 한미 연결 송유관 기능점검 최초 시행을 통해 전시 항공유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훈련으로 철도 활용 항공유 수령 능력까지 확보하면서, 완벽한 항공작전 지속성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김준형 기자

##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속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 손배 승소

5·18민주화운동 왜곡 서적을 쓴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이른바 ‘광수’(광주 투입 북한특수군)로 지목된 당시 시민군들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위자료료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 차복환·홍홍준씨가 극우 인사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피고인 5·18재단과 차씨, 홍씨에게 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씨는 별지에 기재된 각 도서를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각 도서의 동일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3자에게 각 도서를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명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 2명, 5·18재단과 함께 손배 소 제기

법원 “지씨, 원고에 1000만원씩 지급... 도서 출판·배포 금지”

령을 위반할 경우 지씨는 원고에게 각 위반 행위 1회당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의 저서 ‘5·18 북한 개입 주장 42개’에서 5·18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광주에 잠입한 북한 특수군(광수)이 북한 고위급 정·관급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도서에서 이른바 ‘광수 1호’와 ‘광수 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씨가 출판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번 손배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씨는 지금도 차씨를 광수 1호로 생각하

지 않는다. 또 차씨는 광수 1호로 지칭한 김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고의 소송 적격을 문제 삼기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최기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지씨에 의해 ‘광수’로 지목된 피해자들이 5·18재단이 공익적 입장에서 5·18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참가한 첫번째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지씨의 도서의 위법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앞으로 5·18 북한 개입설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판결한 것이

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5·18 역사 왜곡 도서 출판과 같은) 이러한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빨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도 “이날 판결로 5·18에 대한 폄훼, 왜곡, 조롱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며 꾸준한 항쟁사 왜곡 모니터링 활동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 관련 왜곡 폄훼 게시물을 자신의 누리집 등에 올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형사 재판에서도 줄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지씨가 자신의 왜곡 도서에 대해 내려진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전민규 기자

## “게임만 해 불만” 지적장애 아들 살해 60대, 2심도 징역 10년

대학까지 졸업하며 자활 의지가 있었던 지적장애 아들이 명절 연휴 중 휴대전화 게임에만 매달려 산다는 이유로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거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일 오후 1시께 전남 목

포시 상동 자택에서 함께 사는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아내의 오래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고 게임에만 열중하는 아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도 청각장애 등이 있는 A씨는 범행이 틀어 지난 뒤에야 ‘아들의 의식이 없다’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져 있던 아들이 곳곳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아들이 숨진 방의 출입문을 닫은 채, 자택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송현근 기자

## 젓가락 등 광주지역 19개 위생용품 안전성?... 적합판정

광주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품 젓가락 등 위생용품이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다소비 위생용품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나들이용품인 일회용 젓가락·숟가락·포크·컵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이다.

일회용품 등에 대해 중금속(비소·납·카드뮴), 위생지표균(대장균군·대장균·세균수), 유해화학물질(메탄올·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등을 검사했으며 기준·규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신규로 관리대상에 포함된 구강관리용품(칫솔·치실·실태저거기)과 문신용 염료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10월 중순부터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집중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 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이승원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광주시교육청, 공무직 휴가 확대한다... “근로조건 개선”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9월1일자로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했다.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특별휴가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시한 복무 관련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수용

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 휴가일수가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염선호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